서학개미, AI 버블 우려에도 美 기술주 투자 '몰빵'

테크 레버리지 ETF 투자 3.2배 급증
일본 주식 팔고 美 증시 매수세 늘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AI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해외주식을 대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11월 한 달 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55억2000만 달러(약 8조1122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월(68억1000만 달러)에 이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공격적 투자는 계속됐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AI 버블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외주식 매수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UBS AI 주가지수는 11월 중 6.6% 하락했지만, 개인은 국내주식도 10조5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투자 방식은 더욱 공격적이었다. 레버리지 ETF 순매수 규모는 25억5000만 달러로 전월(8억 달러) 대비 3.2배 급증했다. 나스닥·반도체 지수 2~3배 추종 상품에 11억2000만 달러,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Mag 7)' 레버리지 ETF에 6억2000만 달러가 유입됐다.

개별 종목에서도 기술주 선호가 뚜렷했다. 알파벳이 10억56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국제금융센터는 "구글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대신 자체 개발한 텐서처리장치(TPU) 기반 AI 모델 제미나이(Gemini) 3를 발표하면서 AI 주도권 경쟁에서 추격 스토리가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팔란티어 2배 ETF와 소형모듈원전(SMR) 관련주 2배 ETF도 각각 1억1000만 달러씩 순매수됐다.

지역별로는 미국 집중과 아시아 이탈이 동시 진행됐다. 미국은 59억3000만 달러 순매수로 5개월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반면, 일본은 2억9000만 달러가 순매도됐다. 해외주식 보관잔액 1712억 달러 중 94%가 미국 주식으로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센터는 "4월부터 일본 주식 순매도 기조가 지속됐으며 8월 이후 매도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일본 주식을 매도하는 동안 외국인은 일본 증시에서 7조6000억엔을 순매수했다. 일본 증시는 올해 주요 아시아 국가 중 한국(63%), 홍콩(2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26%)을 기록했다.

한편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대조적으로 외국인은 11월 국내 주식을 97조5000억원 순매도하며 자금 흐름의 엇갈림이 뚜렷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전환기 맞은 증권사 해외 사업

미주·동남아 시장에'선택과 집중'
사업확장 대신 안정·성장성 방점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사업 전략을 '선택과 집중'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동남아 등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는 점이 눈에 띈다. 증권사들은 과거 해외법인 확장에 초점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성장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법인 구조를 다시 정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주요 대형사는 모두 미국과 동남아 지역을 해외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사로 꼽힌다. 미국·홍콩·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법인을 두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는 기업금융과 대체투자, 채권업무 등 IB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리테일 영업과 기업금융을 결합한 현지 기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투트랙 전략이 뚜렷하다. 미국 법인은 구조화 금융과 기업금융(IB) 중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은 브로커리지와 IB수요가 모두 성장하면서 해외사업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NH투자증권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대체투자와 기업금융 등 IB 중심 업무에 특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미국 법인에서는 기업금융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아시아 신흥국 일부에서는 리테일과 IB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미국과 동남아 비중을 강화하는 이유는 비교적 안정된 시장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홍콩·중국 시장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구조적 조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투자를 줄이고 있다.

국내 증권업계의 해외 전략이 확장에서 정밀 조정 단계로 넘어가면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해외법인 구조는 더 세분화되고, 지역 선택 능력이 해외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법인의 숫자나 범위가 경쟁력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지역 선택과 기능 배분이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KB증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수상 4일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 임경식 KB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오른쪽)과 김민기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명예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제공

'툭하면 부실판매' 해외 부동산펀드 손본다

금감원 "집중심사제 도입해 심사 강화"

툭하면 불완전 판매, 부실 운용 논란을 빚었던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6곳 자산운용사(삼성SRA, 이지스, 미래에셋, 한투리얼, 하나대체, 키움)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공유했다.

앞서 금감원이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한데다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공실률 등에 대해서도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 전달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신고서 제출시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대상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LTV),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위험을 투자자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고, 손실 우려가 커질 경우 투자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면밀한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복수심사 담당자 지정 및 신고서 수리 전결권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와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재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바이오 산업 성장 전망과 정책 기대감에 저평가 상태였던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운용 제공

KODEX 코스닥 투자자 급증
시장회복 기대감에 수요 몰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수급이 코스닥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KODEX 코스닥150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서 개인 순매수가 크게 늘었다고 4일 밝혔다.

KODEX 코스닥150의 개인 순매수는 1일 하루에만 503억원을 기록했고, 이달 1~3일 누적 순매수는 711억원에 달했다는게 삼성자산운용 측의 설명이다.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인 KODEX 코스닥150의 순자산은 현재 1조3708억원으로,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1808억원에 이른다.

코스닥150 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 1일 개인 순매수 514억원으로 국내 상장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 이달 누적 순매수 역시 899억원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코스닥ETF로 몰리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연초 이후 코스피200지수는 79.6% 상승했지만 코스닥150은 43.4% 상승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정책 발표 시 코스닥 시장 전반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ETF 매수세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섹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랠리가 피로감으로 주춤하는 사이 바이오주가 주도 섹터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150 지수 상위권 편입종목인 에이비엘바이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알테오젠·펩트론 등 바이오 대표 종목도 높은 비중으로 편입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와 바이오 성장 전망으로 상대적 저평가 상태였던 코스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KODEX 코스닥150 및 코스닥150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투자자들의 전략적 접근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